

특수사고 발생 시 2시간 이내 완벽한 사고 수습을 목표로

구미 119화학구조센터

2012년 9월 27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던 구미 불산 사고와 이후에도 꾸준히 발생한 각종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계기로, 산업현장의 각종 화학사고에 대한 선제적이고 일사분란한 대응, 그리고 현장 중심 예방대책의 중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정부는 지난해 7월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범정부 화학재난 안전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내놓고, 시흥, 익산, 구미, 서산, 여수, 울산지역 6개 산단 내에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방재청 등이 참여하는 합동방재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5일 구미 국가산단 내에 합동방재센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소하게 된다. 합동방재센터 중 '구미 119화학구조센터'는 예방 활동은 물론,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곳 119화학구조센터 주영국 센터장을 만나 방재센터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와 운영방침 등을 들어봤다.

취재 김성대 기자 glshu002@safety.or.kr

Q. 지난해 12월 전국 6개 산단 중 첫 문을 연 '구미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내에 '구미 119화학구조센터'가 개소했습니다. 늦었지만, 센터 개소와 주영국 센터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구미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는 최근 연이은 화학사고로 인해 국민적 불안이 고조된 가운데,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설립 취지에 맞게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가스 취급사업장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을 통해 각종 안전사고 요인을 사전에 개선하면서, 화학재난사고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특히, 예방·대비·대응·복구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가운데, 특수사고 발생 시 '2시간 이내에 완벽한 사고수습'을 목표로 하여 신속한 대응에 나서는 등 화학사고 대응 전담기관으로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갈 것입니다.

Q. 평소 '안전'에 대한 센터장님의 신념이나 철학이 궁금합니다.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체 최고경영자의 안전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업체의 안전관리부서에 책임만 부여하는 것이

구미 119화학구조센터 주영국 센터장



아니라 권한도 함께 부여하여 안전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산업현장에서의 각종 안전 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점에서 정기적인 안전 교육과 정례화된 모의 화학사고 대응훈련 등을 통하여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최근 주요 산업단지에서 누출·폭발 등 화학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많은 국민적 우려를 낳았습니다. 이 같은 화학사고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2012년 9월 구미 불산사고 이후 발생한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원인의 절반은 ‘불량 배관’ 때문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최근 발생한 32건의 유해화학물질 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절반인 15건이 ‘시설 미비’로 인한 사고 및 노후화된 배관 또는 이음새 부분에서 누출된 사고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6일 개최된 ‘제11차 환경정책포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EI)’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화학산업은 세계 7위의 규모에 해당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듯 화학·유독물의 유통량이 증가하는 데 비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 근로자의 안전의식 등은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00-2008년 우리나라에서는 총 469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 중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발생이 47%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산업현장 구성원들의 안전관리 의식을 향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Q. ‘구미 119화학구조센터’는 화학사고 발생 시 초동 대응의 중심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센터의 역할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는 관할구역인 대구·경북지역 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합동지도

· 점검과 교육훈련 등을 비롯해, 화학사고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미 119화학구조센터는 화학사고 시 ‘2시간 이내 완벽한 사고수습’을 목표로 하여 신속한 대응·복구가 이뤄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예방활동으로는 환경·산업·고용·지자체 등 기관 별로 보유 중인 화학물질정보와 취급정보, 물질안전정보 등을 최신화하여 공유하고 있는 가운데, 구미 국가산업단 사업장 중 3개 부처 이상 검사·점검업무 중복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2회 합동지도·점검하면서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화학물질 취급업체들의 자율안전관리 시스템을 내실화시키기 위해 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비활동으로는 관할구역(대구·경북) 내 화학사고 등 특수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24시간 출동이 가능한 3교대 근무로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과 긴급구조표준시스템, 소방민원정보시스템, 구조구급활동시스템,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 등을 연계 구축해놓은 상황입니다. 또한 합동방재센터 상주인력을 대상으로 자체훈련(매월 1회)과 위험물질 취급사업장 및 유관 기관 등과의 민·관·군 모의 화학사고 대응훈련(연 2회)을 실시하여 사고 대응력을 높이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는 CBRNE사고대응 전용장비·차량 55종 2,311점을 단계적으로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응활동으로는 화학사고 발생 시 소방방재청 중앙119구조본부 현장대응매뉴얼에 의하여 6단계(사고인지-출동-현장도착-초동대응-대응활동-수습·복구)로 현장대응 중심의 사고수습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복구활동으로는 환경·산업·고용부 및 지자체와 함께 피해상황 및 사고원인조사, 합동피해복구활동, 이재민 구조, 사상자 치료·장례, 대응활동 평가 및 사고재발 방지대책 등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